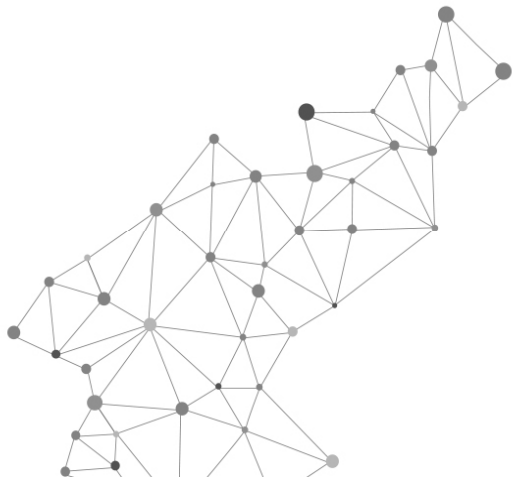


# 동향과 분석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 이석





#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suklee@kdi.re.kr

## I. 머리말

2020년 세계경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봉쇄(lockdown) 정책을 실시하면서 생산과 소비, 분배 등 제반 경제활동이 일시에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경제권 성장률이 올해에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올해 북한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물론 북한 당국은 아직도 북한에는 코로나 감염자가 전혀 없으며,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이른바 자력갱생의 기치를 내걸고 제재의 극복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올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서 북한경제는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 입수 가능한 몇몇 데이터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이와는 약간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올해의 코로나 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경제권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경제이다. 물론 이것이 북한에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북한에서 코로나는 성공적으로 억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를 위해 북한이 사용하는 방식이 올해의 북한경제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고의 목적은 현재 입수 가능한 몇몇 제한적인 데이터만을 토대로 올해 2020년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거시적으로 추론하고 또한 평가해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처럼 위험스러운(?)

시도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침체에 빠진 북한경제가 올해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종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본고에서는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를 과거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1994년의 북한경제와 비교한다. 이는 2020년 북한의 경제 상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외부 세계의 북한경제에 대한 '경각심 있는 관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글의 성격으로 인해 본고는 순수한 학술적 분석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오히려 본고는 저자의 직관적 추론과 시각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하나의 에세이에 더욱 가깝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토론과 주장들을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의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본고의 문체와 서술 형식 역시 일반적인 논문의 형태를 따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학술논문의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둔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위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1994년의 북한경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시 북한경제에서는 소비에트 쇼크라는 추세적 충격과 중국 쇼크라는 즉시적 충격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들 두 가지 충격이 서로 결합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위기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으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올해의 북한경제에서도 1994년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쇼크라는 추세적 충격과 코로나 쇼크라는 즉시적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관찰한다. 물론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는 1990년대의 북한경제와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한 충격들이 곧바로 또 다른 경제위기로 진행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는 이러한 충격들로 인해 2020년 북한경제가 예년과는 다른 한 가지의 심각한 기본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역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II. 1994년 북한경제: 두 가지 충격과 위기의 시작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북한경제를 정확히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몇몇

제한적인 정보와 데이터만으로 추론해 보더라도 2020년 북한경제는 상당한 곤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는 과거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의 시작 당시와 2020년 북한경제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제기될 정도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년 북한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것과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의 시작 당시 모습을 서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4년의 경제상황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1994년의 북한경제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기근을 동반한 극심한 식량위기와 더불어 급격한 산출량의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그간 유지되어 오던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 운영 시스템이 붕괴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처음 외부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95년 북한 당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들은 이 위기가 실제로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표 1〉 북한의 GDP와 성장률, 1992~96년

		1992	1993	1994	1995	1996
GDP (백만달러)	전체	20,875	20,935	15,421	12,802	10,588
	농업	7,807	8,277	6,431	5,223	4,775
	산업	4,551	4,689	3,223	2,228	1,556
	건설	1,315	1,256	910	819	508
	기타	7,160	6,762	4,858	4,532	3,748
성장률(%)	전체		0.3	-26.3	-17.0	-17.3
	농업		5.4	-21.8	-18.8	-8.6
	산업		3.0	-31.3	-30.9	-30.1
	건설		-4.5	-27.6	-9.9	-38.0
	기타		-5.6	-28.2	-6.7	-17.3

자료: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Fact Finding Report," November 12, 1997.

먼저 <표 1>을 보자. 여기에는 북한 당국이 1997년 북한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의 실사 대표단(IMF Fact Finding Mission Team)에 제출한 자국의 공식적인 GDP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1990년대 초반 약 209억달러 내외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1994년 들어 그 수치는 갑자기 154억달러 수준으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4년 한 해에만 북한의 GDP가 무려 26% 정도 하락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세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1995년과 1996년의 GDP 감소율은 전년 대비 평균 17% 수준에 달한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200억달러를 상회하던 북한의 GDP는 1994년 이후 1996년까지 단 3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이라 할 수 있는 106억달러 내외로 급전직하하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는 1990년대 북한의 급격한 산출량의 하락이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정은 식량 소비 및 이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표 2>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 당국이 다양한 경로로 발표한 사망률과 출생률, 기대 수명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조)사망률은 1993년까지 인구 1,000명당 5.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그런데 1994년에 갑자기 이 수치가 1,000명당 6.8로 약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북한 당국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역시 1993년의 출생자 1,000명당 27명 수준에서 1994년에는 최대 31명으로 15%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 더욱 가팔라져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 역시 분명하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위기가 기근을 동반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면, 이의 시작 또한 1994년부터였다는 것이다.

<표 2> 북한의 공식 출생률, 사망률, 기대수명: 1990~2000년

	1990	1993	1994	1996	1998	1999	2000
출생률 (1,000명당)	22	20	-	20.1	18.2	17.8	17.5
사망률 (1,000명당)	5.9	5.5	6.8	6.8	9.3	8.9	8.8
5세 미만 유아사망률*	-	27	28(31)	40(58)	50	48	-
기대수명	-	72.7	-	70.1	-	66.8	67.1

주: \* 출생자 1,000명당 사망률, ( )는 북한 보건성의 USCDC 보고 수치.  
자료: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p.48.

## 2. 추세적 충격 - 소비에트 쇼크

그렇다면 1994년 북한경제에서는 왜 이처럼 심각한 경제위기가 시작된 것일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다 정교하고 엄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만은 매우 분명하다. 1994년 북한경제에서는 예기치 못한 두 가지의 외부적 충격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경제가 일시에 마비에 빠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른바 (舊)소비에트 쇼크라고 불릴 수 있는 ‘추세적 충격’이 하나이며, 이와는 별개로 중국 쇼크라고 불릴 수 있는 ‘즉시적 충격’이 또 다른 하나이다.

먼저 소비에트 쇼크 또는 추세적 충격에 대해 살펴보자. 1980년대 말 (舊)소련(현재의 러시아)에서는 기존의 소비에트 체제가 몰락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역시 일시에 붕괴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은 북한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당시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가 이들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국제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북한의 대외 거래는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1990년 17억달러에 달하던 북한의 무역액은 1993년까지는 9억달러 수준으로, 그리고 1994년에 이르면 9억달러 이하로 절반 넘게 하락한다. 물론 당시의 북한경제는 소위 ‘주체의 경제’를 표방하고 있어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지금처럼 매우 크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무역 총액이 아니라 북한경제가 전적으로 외부 수입에 의존할

<표 3>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수출		수입		합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0	1,733	-	2,437	-	4,170	-
1991	945	△45.5	1,639	△32.7	2,584	△38.0
1992	933	△1.3	1,622	△1.0	2,555	△1.1
1993	990	6.1	1,656	2.1	2,646	3.6
1994	858	△13.3	1,242	△25.0	2,100	△20.6
1995	736	△14.2	1,316	6.0	2,052	△2.3

자료: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표 4〉 북한의 곡물 및 원유 수입 동향, 1991~95년

(단위: 만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곡물 (만톤)	전체	129	83	109.3	49	96.2	105	163	111.2	107	122.5
	(그중 중국)	(30)	(62)	(74)	(30.5)	(15.3)	(54.7)	(86.7)	(28.8)	(23.8)	(28.3)
원유 (만톤)	전체	189	152	136	91	110	93.6	110.6	60.9	31.7	38.9
	(그중 러시아)	(4)	-	-	-	-	-	-	-	-	-
	(그중 중국)	(110)	(110)	(105)	(83)	(102)	(93.6)	(50.6)	(50.3)	(31.7)	(38.9)

자료: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수밖에 없었던 몇몇 중요 전략 물자들이었다. 석유와 코크스, 고무와 같이 북한경제에서는 아예 생산되지 않지만 현대 경제의 운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물자들의 경우 북한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해외 수입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인해 이러한 전략 물자의 수입이 급락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1990년 189만 MT에서 1993년에는 136만 MT, 그리고 1994년에는 91만 MT로 급락한다. 당연히 이러한 수입의 감소는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 때문이었다. 실제로 1980년대까지 북한의 승리 화학 공장에 막대한 원유를 제공하던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아예 대북 원유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충격이 단발성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외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북한경제에 장기적·지속적·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충격이었다는 의미이다.

### 3. 즉시적 충격 - 중국 쇼크

그런데 여기에 더해 1994년에는 중국으로부터 또 다른 심각한 충격이 전해진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을 매우 빠르게 늘리는 추세였다. 다시 말해, 주로 중국으로 부터의 옥수수 수입을 증가시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 물자를 충당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4년에는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갑자기 급락하게 된다. 실제로 1992년 62만 MT, 1993년 74만 MT로 증가하던 식량 수입량이 1994년에는 30만 MT로 급락하는 것이다. 이처럼 1994년에 들어 식량 수입을 위시로 한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갑자기 혼란에 직면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당시 중국의 경제상황, 예를 들어 동북3성 지역의 식량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는 시각부터, 북한과 대만의 경제적 교류 의사 타진 움직임이 중국이 불편해 했다는 시각, 그리고 같은 해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대중국 경제 교섭력이 거의 와해되었을 것이라는 시각 역시 다양한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상관없이, 그리고 특히 이러한 수입의 감소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추세적으로 누적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상관없이, 이는 1994년 북한경제에 매우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충격이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앞서의 추세적 충격에 더해지면서 일시에 북한경제를 혼돈에 빠뜨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당시 북한은 이른바 주체의 경제라는 자기 완결(?)적 국민경제공간을 구축하고 있었다. 현대의 세계 경제가 생산과 소비, 분배 등 모든 경제활동을 국제화하고 있는 데 반해, 주체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국민경제공간 안에서 가능한 폐쇄적으로 관리 운영된다. 예를 들어 나진 선봉의 승리 화학 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하여 비료와 휘발유를 생산한 이후, 이를 평안남도의 청산리 협동농장과 승리 자동차 공장에 보내어 식량과 자동차를 생산하게 하고, 이렇게 생산된 식량과 자동차를 다시 승리 화학 공장의 근로자들이 소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체의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시발점인 석유와 같은 물자가 해외로부터 충분히 주입(injection)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해외로부터의 주입이 소비에트 쇼크로 인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있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식량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 근로자들의 동요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있었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직장에 출근을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4년에는 여기에 중국 쇼크라는 즉시적 충격이 더해졌다. 따라서 이로 인해 만일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북한의 근로자들 역시 동요하기 시작했을 것이 분명하다. 어제까지는 일감이 부족하더라도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직장에 출근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은 이러한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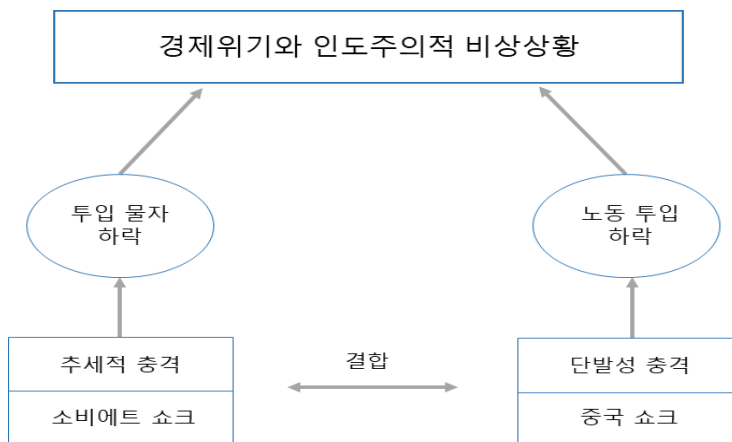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북한경제가 1994년부터 위기에 직면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명하다.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소비에트 쇼크라는 추세적 충격으로 인해 경제의 중요 전략 물자 투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1994년에는 식량 부분 등에서마저 이상이 발생함으로써 노동의 투입에 있어서도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주체의 경제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다. 이러한 경제에서는 하나의 공장 또는 기업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연관된 국내의 다른 모든 공장 또는 기업소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전체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시에 마비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표 1>에 나타난 1990년대 북한의 공식 GDP 수치가 1994년을 기점으로 불과 2~3년 만에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 4.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의 시작

이처럼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위기는 소비에트 쇼크라는 추세적 충격과 중국 쇼크라는 즉시적 충격이 서로 결합하여 1994년의 북한경제를 일시에 마비에 빠뜨리면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1990년대 북한경제 위기의 표준적 해석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북한경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을 경험했으며, 이들 충격들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북한경제를 위기로 몰고가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는 어떻게?

[그림 1]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인도주의적 비상상황



### III. 2020년 북한경제: 두 가지 충격, 그러나 위기는?

이상에서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가 당시 북한경제를 강타한 추세적 충격과 즉시적 충격이 1994년에 서로 결합하면서 일시에 전체 북한경제를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과연 현재 진행형인 2020년 북한경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아마도 ‘아니다’일 것이다. 1990년대 당시의 북한경제와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 사이에는 서로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한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에서는 1994년의 북한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의 충격 모두와 상당히 유사한 충격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20년 북한경제에 나타나는 이들 충격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의미와 향후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논의하는 근거를 구축한다.

#### 1. 추세적 충격 - 대북제재 쇼크

무엇보다 먼저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는 1994년의 북한경제가 경험했던 추세적 충격과 매우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추세적 충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바로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충격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려 해 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현실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과거의 유사한 대북제재와는 달리 2017년을 기점으로 2020년 현재까지 북한에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표 5>는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북중무역 추세를 살펴보고 있다. 흥미롭게도 2016년까지 견조하게 증가하던 북중무역 추이는 2017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이후에는 거의 붕괴라고 부를 정도로 급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대중수출의 경우 2016년에는 연간 최대 26억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7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2억달러 내외로 과거의 1/10 수준으로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대중수입은 수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것으로

〈표 5〉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2015~20년

(단위: 백만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2	2020. 3	2020. 4
수출(A)	2,483.9	2,634.4	1,650.7	194.6	208.5	10.7	0.6	2.2
	(-12.6)	(6.1)	(-37.3)	(-88.2)	(7.2)	(-71.17)	(-96.20)	(-90.09)
수입(B)	2,946.5	3,192.0	3,328.0	2,217.1	2,588.7	197.2	18.0	21.8
	(-16.4)	(8.3)	(4.3)	(-33.4)	(16.8)	(-23.26)	(-90.89)	(-90.03)

주: 1) 2020년 월간 데이터는 중국 해관의 공식 사이트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report/monthly.html>)에서 추출  
2) 2015~19년의 증감량은 전년 대비, 2020년 1~2월, 3월 및 4월의 증감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DB(<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접속일: 2020. 5. 18);  
중국 해관의 공식 사이트 (<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report/monthly.html>, 접속일: 2020. 5. 27).

보이지만, 이 역시 2019년의 경우 연간 26억달러 수준으로 2016~17년의 33억달러 수준에서 약 1/4이 줄어든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 결과 북중무역 총액은 2019년 28억달러로 2016년 58억달러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6년 이후 새롭게 부과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적어도 2017년부터는 북한의 대외무역에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이러한 제재의 영향은 2017년 이후 단순히 북한의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북한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북한의 GDP 성장률은 2017년을 기점으로 2018년까지 연속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2016년 3.9%의 높은 양(+)의 성장률을 기록한 북한경제가 2017년에는 -3.5%, 2018년에는 -4.1%의 급격한 음(-)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2017년 이후 거의 붕괴에 가까운 정도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들이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단순한 무역이나 총산출량을 뛰어 넘어 1990년대

〈표 6〉 북한의 GDP 성장률 추이, 2015~18년

(단위: %)

	2015	2016	2017	2018
전체	-1.1	3.9	-3.5	-4.1
(그중 농림어업)	-0.8	2.5	-1.3	-1.8
(광업)	-2.6	8.4	-11.0	-17.8
(제조업)	-3.4	4.8	-6.9	-9.1
(건설업)	4.8	1.2	-4.4	-4.4

자료: 한국은행 웹사이트(<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접속일: 2020. 5. 18).

후반 이후 북한경제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보였던 북한시장의 확장세에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과거와 달리 북한경제의 전체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2020년 현재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충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1994년 북한경제가 경험했던 이른바 소비에트 쇼크에 비견할 만하다. 첫째, 두 가지 충격 모두가 북한경제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근원적인 충격이다. 소비에트 쇼크의 경우 舊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대외 환경의 기본적인 변화를 몰고 왔으며, 이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요인이 아니었다. 현재의 대북제재 역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결코 사라지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쉽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대북제재는 마치 과거의 소비에트 쇼크처럼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하는 근원적인 충격 요인이라는 의미이다.

둘째, 두 가지 충격 모두가 대외무역의 악화로부터 시작하여 총산출량의 감소를 불러오고, 결국에는 경제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패턴에서 두 가지 충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 소비에트 충격의 경우 원유를 비롯한 북한의 대외무역을 교란시켰고, 이것이 199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산출량의 하락으로 연결되었으며, 결국에는 1990년대 중후반의 전면적 경제위기를 촉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의 북한경제가 직면한 대북제재 역시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대외거래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고, 이러한 무역의 위축세가 급기야는 총산출량의 하락을 비롯한 전반적 경제활동의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요인 모두가 추세적이며, 이에 따라 1994년의 북한경제와 마찬가지로 2020년의 북한경제 역시 이러한 추세적 충격의 영향이 이미 상당 부분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990년대의 소비에트 쇼크는 적어도 1991년 이후부터 북한의 대외거래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1994년의 북한경제는 이러한 충격의 누적적 효과에 이미 3년 이상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현재의 대북제재 역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대외거래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GNI 성장률로 표시되는 북한의 총산출량 역시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0년의 북한경제 역시 대북제재라는 추세적 충격의 누적적 효과에 이미 3년 이상 노출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는 1994년의 북한경제에 나타났던 소비에트 쇼크와 매우

유사한 또 다른 형태의 추세적 충격이 관찰된다. 그것은 바로 2017년 이후 그 영향력이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쇼크이다. 1990년대의 소비에트 쇼크와 현재의 대북제재 쇼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때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결코 대북제재의 효과가 작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1990년대 경제위기 직전 북한경제의 모습과 2020년 현재 북한경제의 모습이 누적적으로 악화되는 대외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 2. 즉시적 충격 - 코로나 쇼크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는 1994년의 북한경제가 경험했던 중국 쇼크와 유사한 즉시적 충격 역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쇼크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가장 선제적으로, 또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몇 안 되는 국가의 하나이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초기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면 대응을 시작하였다. 문제는 북한에 의학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자와 지식, 인프라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이 수행한 것과 같은 보건 의학적 대처 방법은 쓰기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한은 아예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아직도 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경 차단이 북한 대외무역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북중무역에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 들어 북한의 대중국 무역량은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앞서의 <표 5>를 다시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중국 해관이 제공하는 2020년 월간 대북 교역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 데이터는 아직은 약간의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수치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관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2020년 북중무역 데이터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실제로 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누적 북중무역은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71%, 수입은 23%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감소율은 2020년 3월부터

더욱 극적으로 확대되어, 이 달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96%, 수입 역시 무려 90%가 하락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2020년 4월 또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수출입 모두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9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2019년의 북중무역액 자체가 이미 2017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급격히 저하된 상태라는 사실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2017년부터 뚜렷이 감소한 북중무역액이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사실상 거의 완전히 차단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교역의 차단이 주로 북한의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본고에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중무역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수입보다 수출에서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북한의 대중수입이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로 북한 당국의 달러 확보를 차단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민생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과 같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제로 북한의 (상업적) 수입은 원유를 비롯한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가 단행되고, 그 결과 북중무역이 사실상 제로에 근접하면서, 2020년 3월부터 북한의 대중수입이 2019년에 비해서도 9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은 <표 7>에 나타난 2020년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상위 5개 품목을 살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주로 식용유나 담배, 의약품 등 일종의 소비형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수입액 역시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미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현재의 북한경제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본 물자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로부터 식량,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원료, 각종 부품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그런데 <표 7>은 2020년 들어서 이러한 제품들이 아예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지 않는 기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1994년의 북한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운영에 필요한 필수 물자들의 수입이 중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20년 현재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쇼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1994년 북한경제가 경험했던 이른바 중국 쇼크에 비견할 만하다. 첫째, 두 가지 충격 모두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해당 연도에 발생하여 경제에 즉각적으로 충격을 미치는 즉시적 충격이라는 것이다. 둘째, 두 가지 충격 모두가 북한의 수입 부문,

<표 7> 2020년 1월~4월 북한의 대중국 5대 수입품목 수입량(HS 4자리 기준)

(단위: 달러, %)

	HS 코드	품목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위	1507	대두유	19,856,437	-41.47
2위	1101	밀가루	14,278,855	-41.01
3위	5407	합성필라메트사의 직물	12,896,968	-70.82
4위	2403	제조담배	9,989,929	-14.88
5위	3004	의약품	8,325,958	-13.23

자료: 한국무역협회 DB(<http://stat.kita.net/stat/istat/cts/CtsWholeList.screen>, 접속일: 2020. 5. 18);  
중국세관공식사이트(<http://english.customs.gov.cn/statics/report/monthly.html>, 접속일: 2020. 5. 27).

다시 말해 북한경제가 해외로부터 필요한 중요 물자들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교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94년의 중국 쇼크로 인해 당시 북한의 식량 수입이 예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0년의 코로나 쇼크의 경우에는 현재의 북한경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자들의 수입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두 가지 충격 모두 북한경제가 여타의 추세적 충격으로 인해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는 우울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1994년 북한경제에서는 소비에트 쇼크라는 추세적 충격의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2020년 북한경제에서는 대북제재 쇼크라는 또다른 형태의 추세적 충격의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3. 또 다른 경제위기의 가능성 - 여전히 부정적, 그러나?

이렇게 보면 2020년의 북한경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가 시작된 해인 1994년의 북한경제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해 모두 전반적 경제 운영의 흐름 자체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추세적 충격과 즉시적 충격 모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4년 북한경제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충격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후 1990년대 중후반의 전면적 경제위기가 촉발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촉발될 것인가?

물론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에 부정적인 답변을 먼저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 다시 말해 2020년의 북한경제가 매우 어렵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동반한 극심한 경제위기가 곧바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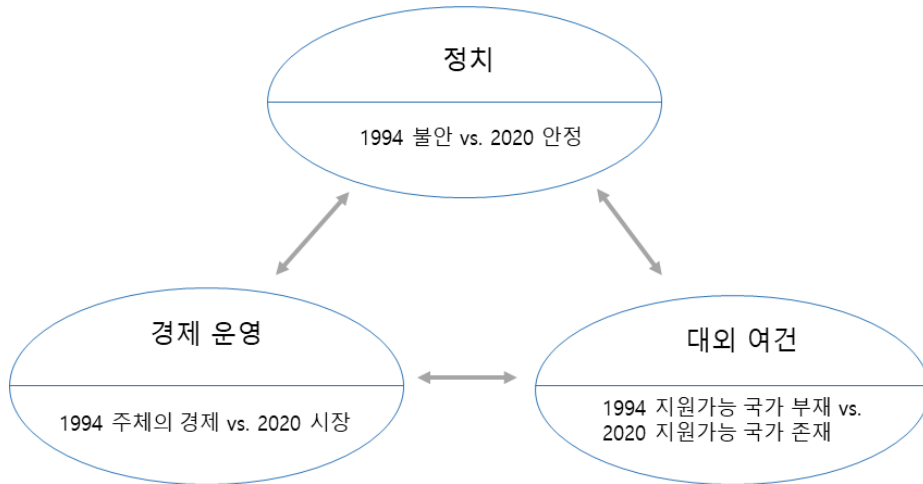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촉발시켰던 1994년 북한경제와 구조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4년의 북한경제에서 추세적 충격과 즉시적 충격이 결합하여 본격적인 대규모 경제위기로 전환된 데에는 이들 충격 요인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미 언급했지만 이른바 주체의 경제로 불리는 북한식의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는 김일성 전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북한 당국을 위시한 전체 경제주체들이 유례 없는 정치적 상황을 맞아 경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그만큼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기능이 실제로 정지 상태였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줄 나라도 없었다. 중국은 아직 그만큼 힘이 없었고, 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으며,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2020년 현재의 북한경제는 이와는 매우 다르다. 북한경제는 이미 과거의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시장과 주민들 스스로의 경제 행위가 전체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물밑에서는 국제경제와의 통합 역시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의 정치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정권을 중심으로 현재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이미 자력갱생을 기치로 하여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겠다고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북한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들 역시 존재한다. 중국이 대표적이며, 한국 역시 북한에서 더 이상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설사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 1994년의 북한경제와 유사하게 제재라는 추세적 충격과 코로나라는 즉시적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곧바로 1990년대와 같은 경제위기가 재발할 것이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은 이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시각만을 고집하여 2020년 북한경제의 위기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것이 정말로 슬기로운 일일까? 아니면 비록 현실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2020년 북한경제의 위기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면서 북한경제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일이 더욱 바람직한 일일까?

[그림 2] 북한의 경제 환경 비교: 1994 vs. 2020



#### IV.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와 함의

이상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2020년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과 1994년 북한경제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1994년과 2020년 북한경제 모두에서 추세적 충격과 즉시적 충격이 함께 관찰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이러한 두 가지 충격들이 결합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2020년 북한경제의 경우 경제 환경과 경제구조가 1994년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1990년대와 같은 경제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20년 북한경제에 있어서는 이들 두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한 가지 매우 기본적인 경제적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러한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된다면, 비록 현재의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을지 모르지만, 이후 또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고의 마지막 논의로 이러한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가 무엇이고, 그것이 시사하는 점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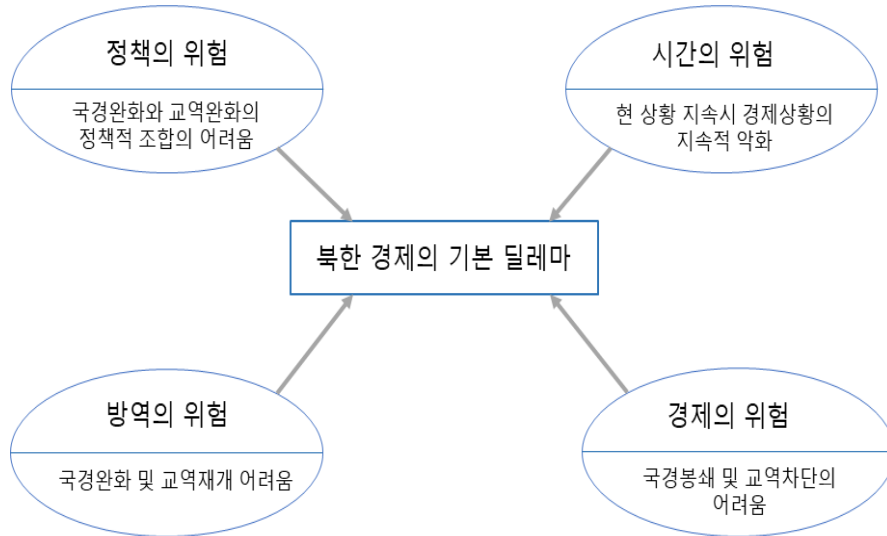
## 1.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

이미 언급했지만, 북한은 현재 코로나를 매우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국경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의 여러 저개발국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각국 정부의 봉쇄 명령으로 경제활동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식량 소비마저 문제가 되는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상기하면,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 역시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국경 봉쇄 및 교역 중단 상황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아마도 오랜 기간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물자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이제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막고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조만간 국경을 다시 열고 대중국 무역 등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조처에 나설 수 있을까? 불행히도 이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국경 개방 및 교역 재개의 대상이 되는 중국에서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0년 5월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가장 예민한 주목을 받는 지역이 바로 길림성 등 동북3성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코로나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접경하고 북한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북한의 국경 개방 및 교역 재개의 직접적 당사자이다. 북한이 이들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조만간 국경을 다시 여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2020년 가을과 겨울에 제2차 파동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여름을 기점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교역을 재개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는 비록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와 같이 계속 국경을 차단하고 교역 중단을 감내하는 것이 가능할까? 앞서 지적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2017년부터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대외무역에서의 충격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시장 물가와 환율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2020년 초반 중국과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급등하는 현상을

[그림 3]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



보였다. 이는 현재의 북한경제가 대중국 교역의 전면적 차단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북한정부의 적극적 개입 등으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 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언제든 이러한 현상이 재발될 수 있으며, 특히 2020년 가을과 겨울에는 식량 생산 등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경제가 장기간의 교역 차단을 견딜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구조이다. 실제로 북한경제는 2012~13년 김정은 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중국 등 해외와의 교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시장과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경제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교역 차단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이러한 경제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2019년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역 차단이 계속되고 그 결과 현재의 경제구조가 붕괴하는 경우 북한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문제는 북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20년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봉쇄(lockdown)와 경제활동의 활성화 사이에서 기본적인 딜레마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들 사이의 균형(balance)을 달성하려는 일종의 미세조정(subtle tuning) 정책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봉쇄에 더욱

주안점을 두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경우 봉쇄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로 무게를 옮겨가는 대신, 이로 인해 다시금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또 다른 강력한 확산 억제 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봉쇄 자체를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미세조정 정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의료 및 보건 인프라와 지식, 경험 등이 축적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설사 코로나 사태를 의식하여 부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교역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이를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위험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2020년 북한경제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코로나를 의식하여 아예 전면적으로 국경을 차단하는가, 아니면 아예 이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고 교역을 완전 재개하는가 하는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2020년의 북한경제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 이로 인한 교역의 중단으로 경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경제를 위해 교역을 재개하면 코로나의 유입에 따른 전체 사회적 시스템의 혼란 가능성이라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더욱이 북한으로서는 부분적인 국경 개방과 점진적인 교역 재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정책 조합(policy mix)을 실시하기도 힘들다. 이는 현재의 북한경제가 직면한 경제적 곤란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처럼 해결책의 선택이 어렵다고 해서 이를 무작정 미루어 둘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경제적 곤란이 더욱 악화되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2020년 현재 북한경제가 직면한 기본 딜레마이다.

요컨대 1994년 북한경제를 강타한 추세적 충격과 즉시적 충격은 이후 북한경제 전반을 붕괴시키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발전했지만, 2020년 현재 북한경제를 엄습한 추세적 충격과 즉시적 충격은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를 양산함으로써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 2. 시사점

그렇다면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와 한국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함의를 내포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그 함의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한국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정부는 범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북한과 밀접한 보건 및 인도주의적 협력을 맺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경우 대북제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광 등 여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한국 측 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것 역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북한은 코로나를 완벽히 방어하여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코로나 무풍지대임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코로나 보건 협력 등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다. 오히려 이 경우 코로나 무풍지대임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경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앞서의 기본 딜레마에서도 분명해 지지만, 현재의 북한경제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코로나에 따른 보건 협력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보다는 스스로의 코로나 방역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 다시 말해 국경 봉쇄에 따른 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보건의 아니라 경제적 (물자)지원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대북제재로 인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뜻 한국과의 보건 협력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관광을 비롯한 여타 협력이나 철도·도로 연결과 같은 사안 역시 유사하다.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경제가 중장기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매일 매일을 유지하고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불확실한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의 남북협력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현재부터 적극적으로 화답할 유인이 크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처럼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를 감안하면, 현재 북한으로서는 한국사회의 대북정책에 적극 화답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현재의 북한경제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할 것을 주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딜레마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는 북한경제에 다시금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코로나에 대한 ‘K-방역’으로 세계의 방역 표준을 창출하는 모범국으로 대우받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 다시금 경제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도록 방지하는 것은 결코 한국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은 1990년대 당시와는 매우 다르다. 당시 북한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었지만,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성장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에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곧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대비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사회로서는 현재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경각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자칫 그것이 위기 상황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시작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는 현재 한국사회의 대북정책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프레임워크를 조금은 조정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그간 한국사회의 대북정책은 현재의 시점에서 즉각적인 남북협력을 원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미래의 시점에 실행 가능한 협력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현실로 존재하는 대북제재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현재의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 한국사회의 협력사업 제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래의 시점에서 A, B, C 등의 협력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남북한이 마주앉아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는 그간의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북한경제의 기본 딜레마를 감안하면 이러한 시간적 프레임워크가 현재와 같은 특수 상황일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프레임워크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고, 그 결과 남북협력이 정체상태를 보일 경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현실이 진행된다면 이를 통제하기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특수 상황을 맞이한 2020년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 역시 기본적인 경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2020년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지금 당장 한국사회가 할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각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 V. 맺음말

본고에서 우리는 현재 입수 가능한 몇몇 제한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2020년 올해 북한경제의 움직임을 거시적으로 추론하고 평가한다는 다소 모험적인(?)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북한경제를 과거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던 1994년 북한경제와 비교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2020년 북한경제가 직면한 기본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딜레마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에서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1994년 북한경제에서는 소비에트 쇼크라는 추세적 충격과 중국 쇼크라는 즉시적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1980년대 말 (舊)소비에트를 포함한 국제적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대외교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그 규모가 이미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며, 그 결과 석유를 위시한 북한경제의 전략적 물자 확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다. 여기에 더해 1994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마저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기근을 동반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충격이 서로 연결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둘째, 이와 유사하게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도 대북제재 쇼크라는 추세적 충격과 코로나 쇼크라는 즉시적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가 급감하는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교역의 감소는 북한의 GNI 성장률과 심지어는 주민들의 시장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초반부터 북한 당국은 코로나의 외부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완전 차단함으로써 대외교역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0년 3월부터의 북한 대외교역은 대중국 수입의 경우 이미 제재로 인해 급격히 하락한 2019년에 비해서도 무려 9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교역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2020년의 북한경제에서 1994년과 유사한 추세적 충격과 즉시적 충격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곧바로 북한경제가 또 다른 경제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현명한 추론이 아니다. 2020년의 북한경제는 경제 환경과 구조에 있어 1994년의 북한경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4년에는 김일성 전 주석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한의 정치가 상당한 혼란에 빠져 경제를 돌볼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체의 경제라는 매우 독특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고, 북한이 위기에 빠질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변 국가들도 거의 없었다. 반면, 2020년의 북한경제는 상대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안정되어 있으며, 이미 시장을 비롯한 주민들 스스로의 경제활동이 전체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고,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을 바라지 않아 북한을 지원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다양한 주변 국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적 추세가 악화된다고 해서 북한이 곧바로 또 다른 경제위기로 빠질 것으로 추론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분명하다.

넷째, 다만 2020년 북한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추세적 충격과 즉시적 충격은 해당 경제가 직면한 한가지의 기본적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현재의 북한경제가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경봉쇄를 완화하고 교역을 재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으로서는 매우 위험스러워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는 중국이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3성을 중심으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올해 가을과 겨울 다시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코로나 파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재와 같은 국경폐쇄와 교역 단절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경우 경제 악화가 심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부분적인 국경 개방과 점진적인 교역 재개와 같은 정책조합을 사용하기도 힘들다. 이에 필요한 보건 인프라와 물자, 지식, 경험 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결정이 늦추어지면 늦추어질수록 북한의 경제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이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가중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2020년의 북한경제가 직면한 기본 딜레마이다.

다섯째, 이렇게 보면 2020년의 북한경제는 한국사회의 대북정책에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북한 스스로가 현재 코로나가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의 보건 협력에 응할 유인이 적은 데다, 대북 관광과 같은 여타 협력사업은 코로나 이후의 사안으로서 현재의 북한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원하는 한국사회의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더 다양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2020년의 북한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경각심 있는 관찰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이제까지처럼 '제재 이후,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바라본 협력사업 추진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협력 형태가 더욱 실현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자세가 요구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년 처음 시작되고, 그것의 효과가 2017년부터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외부 세계의 많은 관찰자들은 북한경제의 미래를 우려스러운 눈길로

관찰해 왔다. 이러한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그것의 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의 진행 과정에서 올해 코로나 사태가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이 2020년 북한경제의 부정적 변곡점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남북한 사이의 슬기로운 협력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바란다.